

에너지인식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세계적 패러다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100년간 가솔린엔진이 주도하던 시장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추세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민·관 공동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동차업계도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시장적응능력 등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서 자동차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긴요하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은 막대한 투자규모와 고위험·불확실성을 수반함과 동시에 보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법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미래접단 기술의 조기 확보 유인 및 보급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대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국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정기국회에 동 법률안을 제출하여 금년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어서 '04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업체 대상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재활용업체의 경영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oreco.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급변에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2003년 개정 세무회계실무”, “재활용산업 창업지원제도”, “폐기물법적처리 입증제도” 등 4개 분야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산업창업절차와 신설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용업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은 집이나 직장 등에서 원하는 시간에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버 상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유원고 및 판넬 자료를 출력하여 사내·외 교육과 실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년간에 걸쳐 이 서비스가 쌓아온 풍부한 교육 콘텐츠는 재활용산업에 진출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재활용산업 경영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조정

Nm<sup>3</sup>당 400.23원에서 392.18원으로 변동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 7월 1일 0시를 기해 LNG기준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산정시 적용된 유가는 30.95\$/bbl에서 29.39\$/bbl 수준이며, 환율은 1,184원/\$에서 1,207원/\$으로 23원/\$ 상승하여 원료비가 현행 325.88원/m<sup>3</sup>에서

317.83원/m<sup>3</sup>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평균도매요금은 Nm<sup>3</sup>당 400.23원에서 392.18원으로, 평균소비자요금(서울시 기준)은 443.32원에서 435.27원으로 조정된다.

'03년 6월중 전력소비량 작년 6월보다 5.6% 증가

수출 증가에 불구, 내수 침체 2003년도 6월중 전력소비량은 234.7억kWh로 작년 6월보다 5.6% 증가하였으며, 1-6월 누계는 1,470.1억kWh로 7.3% 증가하였다.

6월 전력소비는 수출이 21.9%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이 작년 6월 대비 4.6% 감소하는 등 내수침체로 인하여 전체 전력 소비량은 5.6%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총 소비의 56.2%를 점유하는 산업용이 5.1% 증가하였고, 일반용도 내수경기 부진으로 6.9%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주택용은 심야전력의 소비감소

정부인가 전문처리업체 - 매우뭇 폐기물 처리 전문 서비스 시스템. 매우·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중간처리는 물론 탱크청소까지 원스톱으로. 남동에너지주식회사. 남동에너지주식회사(032)812-0871~2 FAX(032)812-0823. 전문 취급품목 ▶ 매우, 매우고상, 기타지정폐기물, 유류탱크 코리닝, 모든 폐기물 상급 가능.

에·너·지·단·신

(-0.4%) 영향으로 금년 최저인 6.3% 증가에 그쳤다.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로 확정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최종결과 발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적합부지로 발표함에 따라 위도가 최종부지로 확정됐다.

위도는 지질조사 및 해양지구물리탐사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암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주 압종인 응회암이 매우 치밀하며, 과학기술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로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도지역 현장 답사를 포함, 전체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지질조건을 포함한 부지환경조건과 사업추진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했다.

시화 조력발전소 10월 착공

발전용량 25만2000kW

세계 최대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이 올 10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 가리섬에 건설키로 하고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 10월 착공하여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석 해양수산부장관, 신항식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대한전기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인 EDF사, 알스톰사 등 국내외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최대 총발전용량 25만2000kW급,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4만kW), 캐나다 안나폴리스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0만kW)보다 큰 것으로 세계적인 규모다. 연간 누적발전용량은 약 5억5000kWh이다.

또 연간 86만 배럴의 유류수입 대체 효과로 287억원의 수입대체를 올릴 수 있으며, 연간 600억m³의 해수유통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차보다 경유차 4배 더 증가

LPG차 월 증가대수 7,800여대 불과 올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는 경유자동차가 LPG자동차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많이 증가한 거스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는 지난달에 이어 6월에도 월 증가대수가 1만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증가율 감소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LPG자동차는 169만4천여대(전체 차량 중 11.8%)로 지난해 말에 비해 6만9천여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G자동차 증가대수는 지난달 168만6천여대에 비해 한달 동안 고작 7,800여대 증가에 그쳐 5월 한달 동안 늘어난 8,900여대에 비해서도 더 떨어지는 등 증가대수가 1만대 이하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유자동차는 487만7천여대로 지난해 말 460만7천여대에 비해 무려 27여만대가 증가하는 등 LPG자동차의 증가수에 비해 무려 4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로 새로운 경유차가 등장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2001년 단행된 에너지가격구조개편으로 휘발유는 물론 LPG에 비해서도 오히려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가격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2000년까지 경유차는 연간 26만~33만여대가 증가한 반면 LPG차는 29만~43만여대가 증가해 경유차를 압도했다. 그러나 부탄에 대규모의 특수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01년에는 경유차 43만2천여대 LPG차 21만5천여대, 2002년엔 경유차 57만6천여대 LPG차 19만3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대수가 완전 역전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LPG업계는 에너지가격구조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유차 증가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LPG자동차의 경우 자칫 내년부터는 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LPG차보다 경유차 4배 더 증가

충전 및 주유소 밀집지역 이용 배람직 충전소 및 주유소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정보를 미리미리 꼼꼼히 살펴보면 가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5일 근무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등도 겹쳐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뜰 충전 및 주유 요령을 익혀 놓은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PG 등 자동차 운전자들이 꼼꼼한 가격비교를 해야하는 이유는 LPG,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가격을 업체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l당 최대 300원까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최고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으로 l당 최고 1,509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474원, 강원도 1,400원 등의 순이었으며 최저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 1,125원, 전남 1,160원 등으로 나타났다.

LPG 최고가격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가 l당 587원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이 586원, 서울과 경북 그리고 대구 579원, 강원도 578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격으로는 전북이 l당 455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강원도가 473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기도 478원, 대전 488원, 전남 491원 등으로 LPG가 충전되고 있었다.

경유의 경우 최고 및 최저가격간 가격차이가 l당 최대 300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최고가격이 높았던 곳은 서울로 l당 924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경기도 888원, 대구 885원, 경북 870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가격의 경우 경북이 l당 57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 578원, 강원도 598원 등이고 나머지 지역은 600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업소에 따라 천차만별인 LPG 및 석유류 가격을 가장 경제성 있게 공급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급적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충전소 및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이들 시설들이 밀집돼 가격경쟁이 심한 곳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꼼꼼한 가격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유소 휴업 대란, 넘겼다

정부 대책안에 업계 "의지 보인다"

휴업 유보

1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주유소업계가 일단 잠정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지난달 30일 긴급 전국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이 유사 휘발유 유통을 엄단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계속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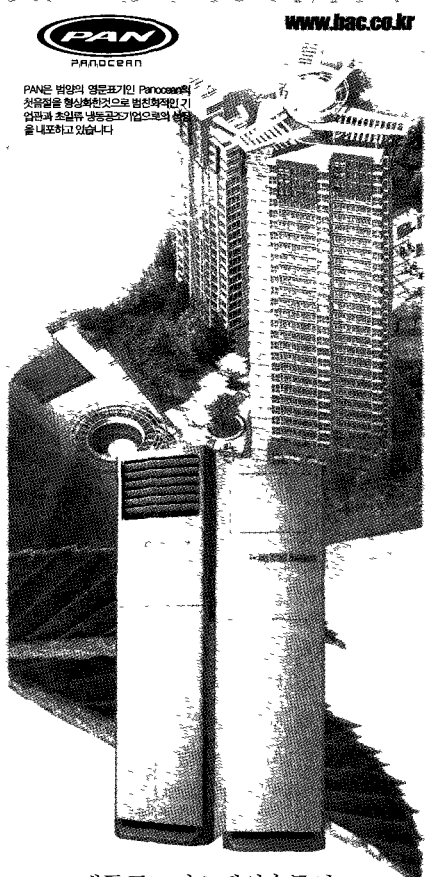
계획이다. 협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유통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방지를 위해 석사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으며 유사휘발유의 원료 차단을 위해 용제환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역시 첨가제의 비율과 용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 공포키로 했다. 또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을 강력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대책안이 제시되자 주유소업계는 예정된 주유소동맹휴업을 유보하고 향후 대응정도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달 15일 과천 종합청사 앞 집회를 통해 세녹스 등 첨가제와 유사휘발유 유통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이 달부터 전국 동맹휴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밝힌바 있다.

<가스산업신문>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고객상담실 : (02)401-4321, (교)761-7631 콜로머서비스 : 080-022-8815-6